

등록금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록

1. 일 시 : 2017.12.11.(월) 12:00~13:30

2. 장 소 : 율곡관 제1회의실

3. 참석위원 : 김민구, 김주용, 이성호, 박수빈, 오설빈, 김천호, 정소영

불참위원 : 윤호섭, 김대중, 김경희, 윤재필

4. 회의내용

- 본 위원회 연장자인 김민구위원이 등록금심의위원회 개최를 선언하다
- 본교 학칙 제17조 3항에 의거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어 있음을 김민구위원이 설명하고, 이에 김주용위원이 김민구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으며, 참석위원의 만장일치로 김민구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다
- 김민구 위원장은 각자 위원별로 자기소개를 요청하다
- 김민구 위원장은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관련 법률안내, 구성, 기능, 역할을 설명하다.
- 모든 위원들은 예산관련 모든 자료를 등록금심의기간 동안 회의 장소에서만 공개 열람하고, 회의 종료 후에는 반납하기로 하는 서약서를 작성하다.
- 김민구 위원장은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일정 및 회의진행방법에 대해 설명하다
- 간사는 2018학년도 예산편성기준에 대해 설명하다
- 간사는 2018학년도 각 부서로부터 접수된 본예산내역과 조정결과에 대해 설명하다
- 김민구 위원장은 각 위원들에게 간사가 설명한 내용을 토대로 질문해 줄 것을 말하다
- 김민구 위원장은 2017학년도 등록금인상률에 대해서 질의하다
- 간사는 2017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입학금은 동결, 학부수업료 및 일반대학원 수업료 1.5%인상을 가결하였으며, 단, 학부수업료 인상률은 1.5% 범위내에서 국가장학 유형Ⅱ 지원조건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확정하는 것으로 정한바 있음을 답변하다.
- 전문가위원이 현재 보류된 사업은 최종적으로는 시행해야 하는 사업인지 문의하다







- 또한 김민구 위원장이 보류된 특정 시설공사 사업은 안전에 위협하지 않은지 문의하다
- 간사는 현재 보류사업들은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사업이나 재원이 부족하여 보류하였고, 시설공사 중 난방시설 공사는 매년 결산 이월금으로 적립하여 대비하고 있음을 답변하다
- 교직원 위원이 교직원 보수 순인상을 보류사업으로 분류한 것에 대해 적절하지 않음을 주장하다
- 또한 김민구 위원장이 연도별 보수 순인상률에 대해 문의하다.
- 간사는 교직원 보수 순인상률이 2015년 1%인상, 2016년 2%인상, 2017년 동결되었으며, 2018년에는 교직원 보수 순인상률을 재정 여건상 현재 보류사업으로 분리하였음을 설명하다
- 교직원위원이 우리학교 교직원 보수는 다른 타 사립대학교의 약 30위권이며, 교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최소한 물가인상률에 준하는 보수 인상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다
- 전문가위원이 등록금 인상률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문의하다
- 간사는 2018학년도 등록금인상 상한률은 3년 평균 물가인상률의 1.5배를 넘지 않아야 하며, 현재 교육부로부터 정확한 수치를 아직 받지 않았으나 약 1.5%로 추정하고 있다고 답변하다.
- 학생위원이 현재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는 학교의 대안이 있는지 문의하다.
- 간사는 현재까지 각 부서 적극적인 협조를 통한 예산조정으로 수입과 지출 차액을 줄여왔으나, 더 좁히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답변하다
- 학부모위원이 2016년 대비 2017년 학생 수가 감소되었는지 문의하다
- 간사는 2016년 대비 2017년 학생 수가 졸업유예학생의 졸업, 휴학, 자퇴 등에 의해 줄었으며, 그에 따른 등록금 수입 감소가 예산대비 약 15억원이라고 답변하다.
- 김민구위원장이 대학구조개혁평가에 의해 정원을 약 4% 감소하였고, 그에 따라 CK-II, LINC 사업 등의 국고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추가 설명하다.
- 학부모위원이 대학 구조개혁평가에서 교원확보율의 영향에 대한 것파, 학교 재정 여건상 교원의 수를 줄여야 하는 것인지 문의하다.
- 간사는 교원확보율이 평균 72%가 되어야 하며, 2018학년도에 74% 되어야 평균 72%가 된다고 답변하다. 그리고 교원임용은 2018년 이후 교무처에서 점진하면서 추진할 것임을 답변하다.
- 학부모위원이 교원의 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부담을 가중 시키는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하다

- 전문가위원이 등록금은 동결하면서, 교원확보율은 높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 것 같다고 의견을 제시하다
- 간사는 등록금 동결은 학생들 직접교육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결국은 대학의 국제적인 경쟁력 강화에 상당한 문제를 일으키게 됨을 설명하다
- 학생위원이 우리학교 등록금은 국내 대학에서 높은 편이라고 의견을 제시하다.
- 간사는 우리학교의 경우 의대가 있고, 공학계열 학생수 규모가 상대적으로 커서 평균등록금이 높은 것으로 집계되지만, 계열별로 비교할 경우 높은 대학에 속하지 않고 있음을 설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비 환원율이 타 대학에 비해 매우 높은 대학에 속한다고 설명하다.
- 학생위원이 교내 공간 임대료가 2016년 대비 줄었다가 다시 증가된 이유를 문의하다.
- 간사는 현재 교내 복지 공간을 부득이 임대를 하고 있는데 그 공간을 교육공간으로 전환할 계획이었으나, 수입이 창출되는 공간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당초 계획대비 수입이 증가된 것이라고 설명하다
- 김민구위원장이 현재 가능한 기금 인출 규모에 대해 문의하다
- 간사는 현재 본부에서 인출 가능 금액에 대해서 답변하다
- 김민구위원장이 현재 인출 가능 금액으로도 예산 부족분을 해소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의견을 제시하다
- 전문가위원이 현재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 보류해야할 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 안과 추가 재정 확보 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다
- 간사는 차기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설명하겠다고 답변하다.
- 등록금심의위원회 차기 회의는 2차 회의(12월13일(수) 11시), 3차회의(12월 15일(금) 오후 12시)에 개최하기로 하다.
- 김민구 위원장은 다른 위원들의 추가 의견을 물었으며, 추가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제1차 회의 종료를 선언하다.

2017. 12. 11.(월)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장	김민구		위원	오설빈	
위원	윤호섭	(서명)	위원	김경희	(서명)
위원	김대중	(서명)	위원	김천호	
위원	김주용		위원	윤재필	(서명)
위원	이성호		위원	정소영	
위원	박수빈	